

CAGLIERO 11

Bollettino di Animazione Missionaria Salesiana



선교에 관한 돈 보스코의 꿈/5



사 랑하는
선 교 사 ,
살 레 시 오
회원, 그리고 살레시오 선교를
돕는 여러 친구들에게!
선교의 달을 맞아 마음으로
부터 인사를 드립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돈 보스코 자서전 18권, 74)

1886년 4월, 바르셀로나에서 마지막으로 꾸민 꿈에 대해서 들은 세 사람이 외친 이 외침이 우리로 하여금 돈 보스코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게 한다. 돈 보스코를 인도하던 양치기 소녀가 전 대륙에 펼쳐있는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준다.

많은 살레시오 공동체의 식당에서 칠레의 Valparaiso에서 중국의 베이징을 잇는 선이 그려진 세계지도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꿈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 꿈은 매해 9월의 마지막 일요일, 새로운 선교사들을 각 나라에 파견하면서 조금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0년 42명의 새로운 선교사 가운데 대부분은 이 5번째 꿈에서 이야기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아프리카 6명, 아시아 24명]. 돈 보스코가 꿈을 꾸 125년 후에 사는 우리도 그 꿈이 이뤄지도록 돕시다! 10월에는 우리 모두 새로운 선교 성소를 위한 묵주기도에 초대되었습니다. 아프리카(초록색), 아메리카(빨강색), 유럽(흰색), 대양주(푸른색), 아시아(노랑색).

Václav Černý

클레멘트 바츠라브 SDB,
선교 평의회원

바르셀로나에서 1886년 4월 9일에서 10일 밤에 돈 보스코는 다섯 번째의 꿈을 꾸고서는 돈 루아, 돈 브란다, 돈 빌리에띠에게 찢어지고 때로는 울부짖는 목소리로 꿈을 이야기 했다. [원본을 보고 싶으면, 자서전 18권 72-74; (<http://sdl.sdb.org>) (=biblioteca digitale salesiana 살레시오 전자 도서관)].



돈 보스코 보통 Sbornau 언덕 근처, Brico del Pino라고 부르는, 카스텔누오보의 언덕 근처에 있었다. 그곳에서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시선이 수평선의 끝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자기에게 달려오면서 외치기를,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셨군요: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떠나지 마세요!’

돈 보스코 아무 것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 가운데 망연하게 서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양 무리를 돌보는 양치기 소녀를 보게 되는데, 그 아이가 돈 보스코 곁에 서서 말하기를: 당신 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 다음에 아이들을 돈 보스코 가까이 오게 하더니 말하기를: - 이제 이곳을 보십시오, 시선을 돌려서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라 써여 있는지 읽으십시오 ... 무엇을 봅니까? 산이 보이고, 바다, 언덕, 그리고 새로운 산과 바다들. 어떤 아이가 Valparaiso라고 외치는 것을 이해했고, 다른 아이는 Santiago라고 말했다. 셋째 아이가 다시 외치자 나는 돌 다를 이해했다. 그리고 양치기 소녀가 계속하기를 지금은 점으로 시작하지만 훗날에는 많은 살레시안들이 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선을 저리로 돌리십시오. 선명하게 선을 긋고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정신을 집중하여 바라보더니 외치기를: 베이징이 보입니다. 그들의 선생님처럼 보이는 아가씨가 잘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베이징에서 Santiago에 이르는 하나의 선을 그으십시오. 그러면, 아프리카의 한 가운데를 반으로 가르게 되고 살레시오 회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을 찾고, 이곳으로 어떻게 선교사를 파견하지... 양치기 소녀가 말하기를, ‘좋은 의도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만 명심 하십시오; 나의 아들들에게 계속하여 마리아의 거룩한 덕을 추구하게 하십시오 ...

**꿈은
계속됩니다:
141차
선교사 파견**



**사목활동에서 선교에
대한 더 넓은 공간을
주십시오.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게 하십시오)**

**2010년 세계 선교의 날을 맞아
교황님의 메시지**

(원본
<http://www.fides.org/index.php?lan=ita>)

10월, 세계 선교의 날을 지내면서 모든 교구와 본당 공동체, 축성생활 단체들, 교회내의 더많은 운동들,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복음 선포 사명을 쇄신 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목활동에서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기를 바랍니다. ...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복음 선포에서 주역임을 느낍니다. 선교 열의는 언제나 교회 활력의 표지였고 (교회의 선교 사명, 2) 그들의 협력은 일치시키고, 형제애를 표시하고, 연대하는 증거가 되며 구원하는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믿게합니다...

15차 선교사 계속 양성 과정

금년, 9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로마의 교황청립 살레시오 대학에서 15번째로 선교사 계속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오늘의 선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제들에 대하여 새로운 쇄신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은 대학 과정의 한 학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해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한 선교사들에게 계속 양성과정으로 계획 된 것이다. 수업은 모두 이태리어로 진행하며, 교수진은 대학에 봉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선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과정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포함되어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선교 사무국 혹은 Don Placide Carava (parava@sdb.org)에게 연락하십시오.



2010 선교, 세계 자문회의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로마 총원에서 선교 사무국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만남인 선교를 위한 세계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선교를 위한 자문회의에는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선교 전문가와 양성 그리고 고무 촉진자들, 살레시오 세계안의 여러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무국의 협조자들, 살레시오 가족들의 대표들, 그리고 청소년 사목과 사회 홍보국의 대표들이 모였다. 여러 결론적 제안들 중에서 자문회의는 살레시오 성교 활동을 점검하는 기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2012년까지 살레시오 선교 연합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와 2015년에 있을 살레시오 선교 대회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했다.



살레시오 선교 지향

중부 유럽과 동 유럽의 살레시오 가족을 위해

중부 유럽과 동 유럽의 살레시오 가족들이 열정과 용기와 겸손과 인내심을 새롭게 하여 젊은이들의 복음화에 매진하도록 기도합니다.

불과 20년 전에서야 유럽의 중, 동부 지역의 몇 나라(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불가리아, 몰다비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코소보)가 오랜 전체주의 정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지금 이곳의 젊은이들은 과거의 유산인 공산주의적 무신론-유물론과 뒤섞인, 소비주의와 세속주의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중 몇 나라에서는 아직 살레시오에 축성된 수도 성소가 부족하지만, 그나마 형제회원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적 환경에 맞는 형태의 초보적인 교육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카리스마를 표현하려 하고 있다.